

# 일본의 새로운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윤 명 중  
(환경농업연구원 연구위원)

## 1. 서론

일본 정부는 6월 24일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정책의 기본방침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결정하였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세 개의 화살<sup>1)</sup> 정책의 적극적인추진으로 일본 경제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인 성장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착실한 실행과 스피드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세 개의 화살 중에서 마지막 제3의 화살인 새로운 성장전략 즉, 일본 경제부흥 전략 중에서 “농림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소득을 두 배로 확대하고, 6차 산업 시장규모를 현재의 1조원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목표로 정했다.

낙농·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규모의 확대와 고부가 가치화로 국내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

\* (mosanjai@nate.com), 본 내용은 일본 총리실 산하의 산업경쟁력회의 농업분과위원회의 보고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정리하였음.

1) 세 개의 화살 : 아베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한 주요 3가지 정책 슬로건으로 ① 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한 과감한 금융정책, ②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동적인 재정정책, ③기업과 국민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 성장정책 (일본 부흥전략) 등을 말함.

그림 1 산업경쟁력 회의)를 주재하는 아베총리



이 대 전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농지중간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농지의 집약화, 경영의 대규모화 조치와 함께 쌀 생산 조정정책 폐지 등 작물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확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목표달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에의 도전의욕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장 환경 정비, 규제개혁 등을 중점 실시하고, 농업의 성장산업화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전략의 기본 방침으로는 (1) 사업 도전 의욕이 있는 기업과 개인이 농업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의 창출, (2) 1·2·3차 산업의 연계전략 강화,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활용, (3) 문화를 포함한 일본의 음식과 농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등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경쟁력회의의 농업분과위원회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2. 성장전략의 기본 방침

### 2.1. 도전적인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국내 농업생산은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창설에 의한 농지의 집약화·농업경영의 효율화·합리화와 2018년까지 쌀 생산조정 정책의 폐지로 농가 작물선택권의 자유를 되돌려주는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경영능력이 있는 인재를 활용한 농업경영의 가속화, 상품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사업도전 의욕과 경영능력 및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하여 농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시장 환경을 창출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차방식에 의한 농지 임대시장의 활성화, 의욕 있는 단위농협과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개인과의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I턴, U턴 인재의 활용 등 농업벤처기업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각 현별<sup>2)</sup>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역할이 농업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임원 경험자와 우수한 경영실적을 낸 농업법인경영체 등 경영감각이 풍부한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농지중간관리기구 임원의 과반수를 이러한 인재가 담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나아가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의 집적과 경영규모의 확대, 신규진입자의 증가 등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관을 정부 내에 설치하고, 그 기구의 거버넌스를 철저하게 강화한다.

### 2.2. 1·2·3차 산업간 연계 전략적 강화

‘농업·농촌 전체의 소득배증, ‘6차 산업 시장규모 10조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3차 산업의 연대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이면서 매력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일본의 6차 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조원

사업형태	농산물 직접 판매	농산물 가공	농산물 수출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	합 계
시장규모	0.6조원	0.3	0.5	0.04	1.44

자료: 농림수산성, 2010, 「2010년 세계 농림업센서스」, 농림수산성

2) 현(縣): 현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현으로 시정촌을 총괄하는 광역 지방공공단체.

이를 위하여 1차 산업과 2·3차 산업의 신규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간다.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 창출에는 경영의 관리능력, 마케팅 능력, 그리고 일본 특유의 ‘좋은 제품 만들기’의 높은 기술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일본의 식품가공업체의 노하우와 전문적 식견, 그리고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민간기업의 농업과 관련 산업으로의 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이처럼 농축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욕이 넘치는 농업 종사자와 새로운 사업도전 의욕을 가진 민간 기업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2.3. 와쇼쿠<sup>3)</sup> 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생산성이 높고, 차별화·고부가가치화로 대표되는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분야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국제적으로 연결하고, 이것이 수출 마케팅으로 확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일본경제 부흥전략에서 내세우는 2020년 일본 농수산물·식품 수출 1조 엔을 달성한다.

농산물이 단순한 단일 품목별 수출에 머물지 않고, ‘와쇼쿠’가 UNESCO 무형문화유산(세계유산)에 등록<sup>4)</sup>된 것을 기회로 ‘와쇼쿠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로 전파하도록

그림 2 와쇼쿠(和食)



3) 와쇼쿠(和食) : 초밥, 소바, 카이세키요리 등 일본 요리 및 식문화를 대표하는 말로 일식(日食)이라고도 함.

4)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록 : 와쇼쿠가 일본의 식문화를 2013.12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

노력하며, 쿨 재팬(Cool Japan)전략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사령탑 기능을 정비하고, 전략적인 해외전파 전략을 구축한다.)

또한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데 대처하기 위하여 올 재팬(All Japan)의 일원적 수출체제(품목별 수출단체의 설립과 그것을 총괄하는 「농산물 수출촉진기구(Agricultural Export Promotion Organization, AEPO)라는 사령탑 기능」의 설치, 일본 브랜드화, 국제규격 문제, 수출시장에서의 콜드 체인(Cold Chain) 정비, 각국과의 검역교섭의 추진 등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가속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강화하고 가속화함으로써 개정 성장전략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수출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2030년에는 수출액 5조 엔을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3.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시책

#### 3.1. 가치사슬과 기업 동맹을 촉진하는 환경정비

##### 3.1.1.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6차산업와펀드 A-FIVE<sup>6)</sup>) 기능의 개선

현재의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의 제도·운용에서 농림어업자의 자금부족 등에 기인하는 제도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1)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제도개선(법률개정)

법 시행 후 3년째(2015년 12월)의 개정 시에 농림수산성은 농림어업자의 불안 등을 불식시키도록 농림어업자 최저 출자비율 조항 철폐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2) 법 개정 이전까지의 잠정조치

농림어업자의 자금부족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농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출자대상의 범위를 명시한다. 관제 비지니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농업비즈니스투자육성주식회사와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와 연계하고, 농업비즈니스사가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6차 산

---

5) 또한 '와쇼쿠'의 범위를 일본 내의 서양식과 B급 대중음식도 포함시키는 넓은 개념을 취함.

6) A-FIV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und corporation for Innovation, Value-chain and Expansion Japan의 약칭)은 농림어업자의 6차 산업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민펀드로 20년간의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화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이 되므로 농림어업자의 자금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농림수산성에서 국 단위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의 업무운영은 사업투자 전문 인재를 민간사업자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 3.1.2. 식품가공업체 등이 6차 산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속진

식품가공업체가 6차 산업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 가공·제조시설과 식품공장, 유리온실 등 식품과 농업에 관련된 공장과 시설에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책과 제도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는 6차 산업화 관련 공장·식품공장 부지의 농지와 같은 과세, 공장·제조설비 등의 투자에 감세조치, 식품공장과 유리온실에 대한 건축기준법·소방법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식품공장 등 효율적이고 부가가치형 농업생산에 투자를 환기하고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 등의 집적에 따른 장점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농업분야에서의 산업클러스터·공업단지 등 기반장비를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한다. 이 때 ‘수출모델지구’와 연동시키는 것도 검토한다.

## 3.2. ‘와쇼쿠’의 국제진출을 위한 시스템(가칭) 창설

일본의 농림수산물 등과 가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와쇼쿠’와 ‘와쇼쿠 문화’, ‘일본의 고품질 농산품’의 국제적인 시장개척·전략적 마케팅, ‘식품과 ‘오모테나시’ (손님 존중문화의 일본말 표현)의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식품과 농업의 국제 전파의 추진모체가 되는 관민연대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3 오모테나시



7) 오모테나시 : 2013년에 2020년 올림픽 개최지 도쿄 유치활동을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프리아나운서 타키가와 크리스텔의 스피치로 ‘일본인의 손님접대 정신을 나타내는 일본어’로 소개되었음. 당시 그 해의 유행어로 선정될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애용되기도 했음.

동 시스템은 식품과 농업에 식견을 가진 전농<sup>8)</sup>과 민간부문의 기업·학교·투자가 등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쿨 재팬(Cool Japan)기구와 산업혁신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sup>9)</sup> 등의 기능과 식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 주최의 와쇼쿠 소개 이벤트 등에 의하여 보다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이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 등의 관계자를 포함한 추진체제 검토기구를 금년 9월까지 설치한다.

이것에 의하여 ‘와쇼쿠와 ‘와쇼쿠 문화’의 전략적인 국제진출을 도모하며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특색 있는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2020년에는 일본의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 1조 엔을 실현한다.

### 3.3.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연결

#### 3.3.1. 품목별 수출단계 설립 등 수출 지원체제 정비

농업수출대국인 뉴질랜드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상품별로 수출일원화 기능을 가진 조직을 통해 고품질 농산품의 생산촉진, 상품의 수출시장에 안정적·계속적인 공급, 수출국 시장의 고객니즈에 매우 세심하게 배려한 공급체제를 실현하고 있다.<sup>10)</sup>

한편, 일본도 수출하기 쉬운 국가와 지역의 특정 시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농산품이 집중 진출하여 상당경쟁을 하는 등 일본 내 산지간의 경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소매점포에서 매장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목별 수출단체’를 설립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안전위생기준 등에 맞는 국제 규율 등 적절한 품질관리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출대상국 시장정보, 고객수요에 대한 피드백을 생산자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케팅에 의한 고품질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생산·수출을 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이러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중에 우선 쇠고기, 차, 수산물 등의 품목별 수출단체 설립에 착수한다.

8) 전농 :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국 농협의 연합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직이며, 생산자재와 생활용품의 공동 구매, 농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업에 관한 기술·경영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9) JETRO :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약칭이며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무역진흥에 관한 사업, 개도국 및 지역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0)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선키스트 등.

또한, 품목별 수출단체 설립을 통해서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하고 프랑스의 식품진흥회(SOPEXA) 역할을 참고하여 개별 상품을 넘어서서 국가와 시장별로 수출전략의 구축, 판매망·시장망 개척, 품목별 수출단체 상호간 연대강화 등을 지원하고 총괄하면서 All JAPAN Agree 수출진흥기구(AEPO)라는 일원적 수출체제의 사령탑 기능을 정비한다. 이 때 AEPO에는 국제적인 시장개척과 상품·판매기획 등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의 인재를 활용하는 관민 일체가 되는 시스템과 전략을 구축하고 업무운영을 추진한다.

### 3.3.2. 수출시장에서의 Cold Chain의 정비

원래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신선농산물과 냉장품 등의 수출에는 냉장수송 등 기반시설 정비가 불가피한데 그러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에서 일본산 농식품의 수출전망이 큰 아시아와 중동국가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 등의 수출환경을 정비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본의 ODA<sup>11)</sup>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3.3.3. 국제규격 인정 취득지원과 국제규격의 육성

#### 1) 국제규격 인정 취득지원

일본산 농산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의 인정취득을 촉진한다. 인정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그룹인정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령탑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품목별 수출단체와 단위 농협의 적절한 사령탑 기능을 촉진한다. 동시에 국내 농수산물우수관리(GAP)체계에 국제규격화로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수출가공장의 EU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정취득 촉진 등을 추진한다. 인정 취득신청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5년간 100건(매년 20건 정도 예상)이 취득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신청 후 60일의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적절하게 신속한다. 또한 양식장 등의 등록신청에 관해서는 적절한 진도관리를 실시하여 30일 정도를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을 추진한다.

#### 2) 국제규격의 육성

일본의 GAP는 대부분 자주인정으로 국제규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는 과제를 해결

1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개발원조로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선진국의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전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와 출장 등.

하기 위하여 일본 농업실정을 감안한 통일규격을 설정하고 국제규격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준 첨가물인 국산가공품에 널리 사용되는 것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자 색소, 붉은 누룩 색소, 잇꽃(紅花)<sup>12)</sup>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과 축산물 액기스가 함유된 가공식품의 국제규격화 등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협력하여 농식품 수출 저해요인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 3.3.3. 검역협상의 전략적 실시

검역조치에서 일본으로의 수입조건은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출 시에는 특정국가와 검역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불리한 상황인 경우가 있다.<sup>13)</sup>

부유층이나 중간층 등 일본산 고급 농식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검역교섭의 장이 존재하는 FTA협상 상대국·체결국가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농산물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와 품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역협상 전략’을 확립하여 연내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 3.4. 6차 산업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생산연장 강화

### 3.4.1. 경영능력 있는 경영체 육성(농지 집약화 및 쌀 정책의 개선)

#### 1)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본격가동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신규취농 희망자 등에게도 농지집적이 될 수 있도록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농지를 빌리고자 하는 신규취농자 수요자에게 기존의 ‘사람·농지 플랜’<sup>14)</sup>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농지 집약화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신규참가에 대한 지원 실적과 임원구성 등에서 기구의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설치하는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본부에서 적절하게 실시한다.

이 경우에 기구 및 본부는 농업에 신규 참가가 어려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동 기구를 활용하여 집적된 농지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창구를 각 도도부현의 농지기구와 농림수산성에 각각 설치한다.

12) 높이는 1m에 달하고 전체에 털이 없으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피침형(披針形)으로서 톱니 끝이 가시처럼 된다. 꽃은 7·8월에 피며, 모양이 엉겅퀴와 같으나 붉은빛이 도는 황색이고,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1개씩 달린다. 잇꽃은 염료로 이용되어 예전에는 많이 재배되었다.

13) 예를 들면, 미국·한국과의 온주밀감 사례, 대 중국 쌀 수출 사례 등.

14) 사람·농지 플랜 농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람과 농지문제를 일괄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어 각각 마을과 지역에서 「미래 설계도」가 될 지역농업의 마스터 플랜이 되는 ‘사람·농지 플랜’을 수립하고 있음.

기업이 농지임차에 의한 농업에 신규참여 시 참여기업 선정기준 등의 운용이 적절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 2) 쌀 정책의 개선

2016년에 쌀에 대한 생산조정을 확실하게 폐지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이러한 정비를 위하여 세부적인 수급·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생산조정 폐지, 농협개혁, 전농의 개산금 방식을 개선하고, 동시에 생산자가 수요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쌀 시장의 정상화 및 시장기능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하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한 생산조정 정책 폐지와 동시에 농업경영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입보험을 도입한다.

### 3.4.2. 사재·유통 가격 삭감

농협과 농업법인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신속하게 실현되도록 단협 직판과 계약판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농협 상호간과 농협과 민간업체와의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3.4.3. ‘농업수출 모델 지구’ 의 창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수출하기 위하여 EU HACCP, 국제 표준 할랄(halal 인정<sup>15</sup>) 등의 국제적인 수출기준의 취득과 국제물류망에의 접속에 관하여 중점적인 지원책과 규제·제도개혁의 선행실시 등을 추진하는 「농업수출 모델지구」를 창설하고 전국적 전개를 추진한다.<sup>16</sup>

지정된 농업수출 모델지구에는 해당 모델지구의 특산 농산품과 주변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조미료 등을 집적시켜서 해외 유망 시장으로의 수출과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또한 각 농업수출 모델지구를 총괄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기관으로 전술한 농산물수출진흥기구(AEPO)의 기능을 활용한다.

15) 할랄(아랍어 Halal) 인정 : 이슬람에서 합법적인 것을 의미하며, 주로 법에서 허용된 먹거리를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법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식품도 일정한 가공·조리 과정을 준수하게 하는 데 이것도 할랄이라고 함. 한편, 식용이 금지된 것을 하람(haram), Halal과 haram의 중간에 있는 것을 Shubuha라고 하는데 슈후바 식품도 가능하면 먹는 것을 피하고 있음.

16) 예를 들면, 홋카이도, 차바(나리타), 나가타, 구마모토 등 지역부터 시작함.

### 3.4.4. 낙농·축산분야에서 개혁과 6차 산업화의 추진

#### 1) 총론

낙농·축산 분야는 경영의 대규모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6차 산업화에 의한 차별화·고부가가치화·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낙농·축산 산업에서 국제적인 최신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규모 확대와 가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연내에 수립한다. 또한 일본의 강점을 잘 살리도록 사료용 쌀과 옥수수 등 국산 사료를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2) 낙농유업의 구조개혁과 6차 산업화

일본의 낙농·유업은 높은 사료 가격, 시장 수요와 괴리된 생산체제<sup>17)</sup>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주로 수입품인 농후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체질을 바꾸어서 방목과 하이브리드 농후사료의 확대 등 탈 수입의존형 체제로 전환한다. 다자녀 시대의 우유 소비에서 고령화 시대의 요구르트로 수요가 변화되는 시장 환경 변화 동향에 대응한 생산체제 구축을 촉진한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조치를 강구한다.

- ① 프리미엄 생유를 생산하는 낙농가가 지정단체 제도의 범위 내에서 유가공업자와 직접 유가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 ② 자가 제조 판매 허용량(1일 1.5톤)의 개선
- ③ 자가 제조 이외의 판매(유가공업체에 판매 등)를 허용
- ④ 지정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전량을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낙농가의 수익향상 지원

#### 3) 홋카이도의 낙농수출 거점화 구축

현재 홋카이도는 종합 특구 HFC(홋카이도 FOOD특구)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홋카이도산 낙농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낙농」에 초점을 둔 「홋카이도 브랜드의 확립」을 축으로 한 수출거점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홋카이도 수출거점에서 수출용 유업시설의 설치 기준의 완화, 국내외 기업의 집중적 유치, 수출을 위한 검사체제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7)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등.

## 4. 결 론

동 위원회는 개정되는 성장전략에서 「농업의 성장산업화 강화·가속화」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농정전반에 걸친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지제도는 전후의 농지개혁에 근원을 둔 농지법에 기초한 제도적 틀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농지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농지개혁을 통해 대규모 지주의 해체와 자작농의 창설, 기존의 경작자 보호 등을 기본 사상으로 했으나, 현 시점에서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농지의 집약화와 경영의 대규모화,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 확보라는 당시의 농지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목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현재는 농촌 지역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농지를 방치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경영에 의욕이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농업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영체와 창의적인 민간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창설에 의한 농지의 집약화, 경영의 대규모화 및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지로서 건전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면서 생산성이 높은 농업경영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이용 제한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화하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방향 설정과 기업의 농업참가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구축 등이 향후 농정개혁의 최우선 중점사항으로서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업과 농촌지역 활력창조 본부에 농정개혁의 진척상황에 대한 검증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개정되는 성장전략에서 그 취지를 명기하고 앞으로 농업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개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방침과 결의를 내외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新浪剛史, 秋山咲恵 2014 日本の「産業競争力會議 農業分科委員會の 報告資料」.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業 推進本部 2014 「攻めの 農林水産業」 關聯資料 .  
首相官邸. 「成長戰略で明るい日本の未來のために」 關聯資料.  
山下一仁 2014.05.30 「規制改革會議の農政改革のための提案」 キャノングローバル研究院.  
行友弥 2013.5.23 「農業所得倍{増} 達成へ向けた課題」 農林中金綜合研究所.